



### 광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 홀로서기 지원

광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지원하고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후원하는 '자립 후 지원금 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자립 후 지원금 사업'은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준비 청소년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광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생활물가 및 난방비, 전기세 등의 요금 상승과 불안정한 소득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생계비(생필품, 식재료 구입), 주거비(관리비, 공과금 등),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금을 받은 한 청소년은 "쉼터에서 퇴소하고 독립생활을 하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다. 지출 대비 소득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웠는데 이번 자립지원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 올 첫 번째 광주 온 가족 패밀리 아너 탄생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 이하 광주 사랑의열매)는 한시인 세라코(주) 대표이사인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156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8번째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지난 17일 광주 사랑의열매 2층 나눔문화관에서 진행된 가입식에는 한시인 세라코(주) 대표이사, 한상원 다스코(주) 회장, 박철홍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 김진근 광주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김동기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라코(주)는 광주·전남 유일의 점토벽돌 제조 전문 기업으로 나주 봉황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한상원 다스코(주) 회장(광주 42호 아너)과 박일선 (주)홍인 대표이사(광주 43호 아너)는 지난 2016년 광주의 7번째 부부 아너로 가입했으며, 이날 자녀인 한시인 세라코(주) 대표이사가 156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2023년 광주의 첫 번째 가족 패밀리 아너가 됐다. **강주비 기자**



### 장성 동화면 복지기동대·청년회 이웃사랑

장성군 동화면 복지기동대와 청년회가 마을 노인인과 이웃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었다. (사진)

지난 8일 송계경로당에서 광주권 미용 봉사자들을 초청해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들 단체는 매월 1회 지역 노인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해 머리를 다듬기 어려웠던 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인식 복지기동대장과 임찬봉 청년회장은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화면 복지기동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마을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낡은 장호를 교체하는 집수리 봉사를 펼치기도 했다. **조진용 기자**



### 이미정 웃음치료 강사, 고향사랑기부 동참

이미정 한국웃음치료연구소 강사가 지난 17일 나주시장실을 방문해 윤병태 나주시장에게 나주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해 고향사랑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사진)

이 씨는 "나주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나주 남편에 거주하고 있어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평소 큰 애정을 갖고 있다"며 "나주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나주시 공직자 마인드 함양교육 강사로 초청돼 '나의 적극 행정이 나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공직자의 친절, 적극, 혁신행정에 대한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제2의 고향인 나주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릴레이에 동참해 주 감사드린다"며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테니 사회에 긍정 에너지로 웃음과 희망을 전하는 강사로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박승엽 기자**



### 한전MCS, 튀르키예 지진 성금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한전MCS(주) (사장 정성진)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및 구호 활동을 위한 성금 4686만3000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한전MCS(주)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본사 및 지역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및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성금 전달식은 지난 16일 나주 한전MCS(주) 본사에서 진행됐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에 보내져 현지에서 활동 중인 연맹(IFRC)과 해당 국가 적십원사를 통해 피난처(쉼터), 식료품, 구호품 지원 등 긴급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성진 사장은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전 임직원들이 함께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강주비 기자**



### 엠마우스집, 튀르키예 지진 성금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 이하 광주 사랑의열매)는 엠마우스집(원장 김옥희)에서 지난달 6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를 돕기 위한 성금 40만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광주 사랑의열매 2층 나눔문화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옥희 엠마우스집 원장, 김진근 광주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옥희 원장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며 "모금에 동참하여 준 직원들과 이용인분들에게 감사사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근 광주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지진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져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광주 사랑의열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 전남대 이용식 교수 '아태민족음악학회' 부회장 선출



전남대학교 이용식 교수(국악학과·사진)가 지난 3월 4-6일에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아시아태평양 민족음악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19일 전남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민족음악학회(Asia-Pacific Society for Ethnomusicology)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14개국 음악학자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음악학 학술 단체다.

이 교수는 2019년부터 한국 이사로 참여했고, 올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차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아리랑>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해 일제강점기 동안 이루어진 <아리랑>의 근대화, 국가화, 대중화 현상을 고찰했다.

또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 교수 외에 호남학연구원 김미영 연구교수, 국악학과 박사과정 정승인과 Tian Lu (중국 유학생), 석사과정 Lin Chen Jung (대만 유학생) 등이 참가했다. **노병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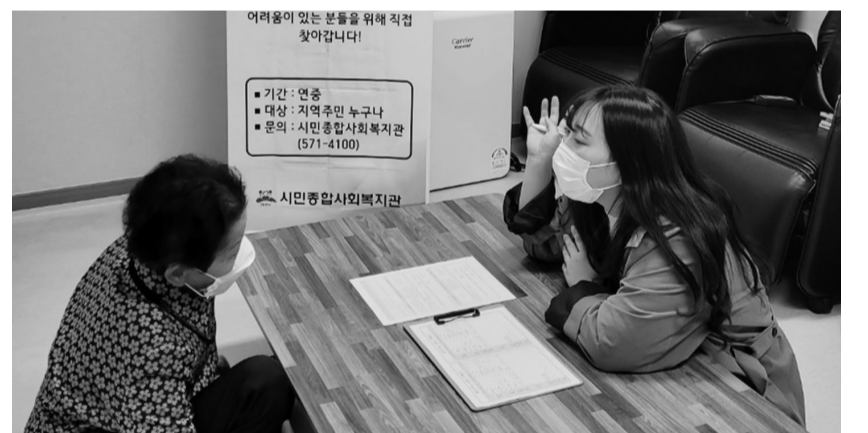
### 화순전남대병원-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협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손잡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19일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병원 5층 회의실에서 정용연 병원장과 김인영 진료처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허정 회장, 김동수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환자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환자의 건강회복과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헌혈 운동과 희망폰자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 북구 LH신용주공,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진행

광주 북구 LH 신용주공 주거행복지원센터는 최근 시민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외계층 발굴 캠페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LH 신용주공 아파트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사회복지실천·소외계층 발굴·지역사회 행복한 공동체 마을 만들기 등을 위해 추진됐다.

활동 내용은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등이다. **정성현 기자**



### 광주역다사로움 봄꽃 식재

주택관리공단 광주역다사로움이 최근 입주민들과 함께하는 봄꽃심기 행사를 가졌다. 관리소 직원들과 입주민들이 함께 단지내에 각종 꽃을 심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택관리공단 광주역다사로움 제공**